

2015년 9월 고용동향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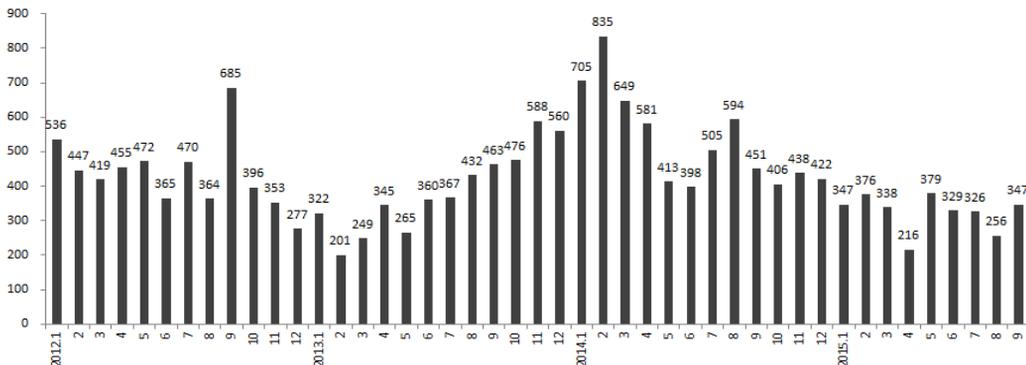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정현상(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정재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1 2015년 9월 고용동향

- ◎ 취업자 수 : 2014년 9월 대비 347천 명 증가
 - 1~9월 평균 324천 명 증가
 - 2015년 들어 남성 취업자 증가폭이 가파르게 둔화하는 가운데 9월 여성의 증가폭(229천 명 ↑)이 남성(118천 명 ↑)에 비해 크게 증가

[그림 1]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2013. 9	2014. 9	2015			
				6월	7월	8월	9월
15 세 이 상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42,193 (1.2)	42,611 (1.0)	43,025 (1.3)	43,055 (1.2)	43,086 (1.2)	43,119 (1.2)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6,186 (1.7)	26,766 (2.2)	27,255 (1.6)	27,303 (1.5)	27,064 (1.1)	27,129 (1.4)
	취업자 (증가율) (증가수)	25,466 (1.9) (463)	25,917 (1.8) (451)	26,205 (1.3) (329)	26,305 (1.3) (326)	26,141 (1.0) (256)	26,264 (1.3) (347)
	(남성)	(206)	(222)	(131)	(118)	(97)	(118)
	(여성)	(257)	(229)	(199)	(208)	(160)	(229)
	참가율 (남성)	62.1 (73.6)	62.8 (74.3)	63.3 (74.4)	63.4 (74.7)	62.8 (74.0)	62.9 (73.9)
	(여성)	(51.0)	(51.9)	(52.7)	(52.6)	(52.1)	(52.4)
	고용률 (남성)	60.4 (71.4)	60.8 (71.7)	60.9 (71.5)	61.1 (71.8)	60.7 (71.4)	60.9 (71.4)
	(여성)	(49.8)	(50.4)	(50.7)	(50.8)	(50.4)	(50.9)
	실업자	720	849	1,050	998	923	866
	실업률 (남성)	2.7 (3.0)	3.2 (3.4)	3.9 (3.9)	3.7 (3.8)	3.4 (3.5)	3.2 (3.4)
	(여성)	(2.5)	(2.9)	(3.7)	(3.5)	(3.2)	(2.9)
	비경황 (증가율)	16,008 (0.4)	15,845 (-1.0)	15,770 (0.7)	15,751 (0.7)	16,022 (1.4)	15,990 (0.9)
	15 ~ 64 세	참가율 (남성)	66.9 (77.7)	68.0 (78.6)	68.8 (79.0)	68.9 (79.3)	68.3 (78.7)
(여성)		(56.0)	(57.2)	(58.5)	(58.5)	(57.9)	(58.1)
고용률 (남성)		65.0 (75.3)	65.7 (75.9)	66.0 (75.8)	66.3 (76.2)	65.9 (75.7)	66.1 (75.8)
(여성)		(54.5)	(55.4)	(56.2)	(56.3)	(55.9)	(56.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고용률 : 2014년 9월 대비 0.1%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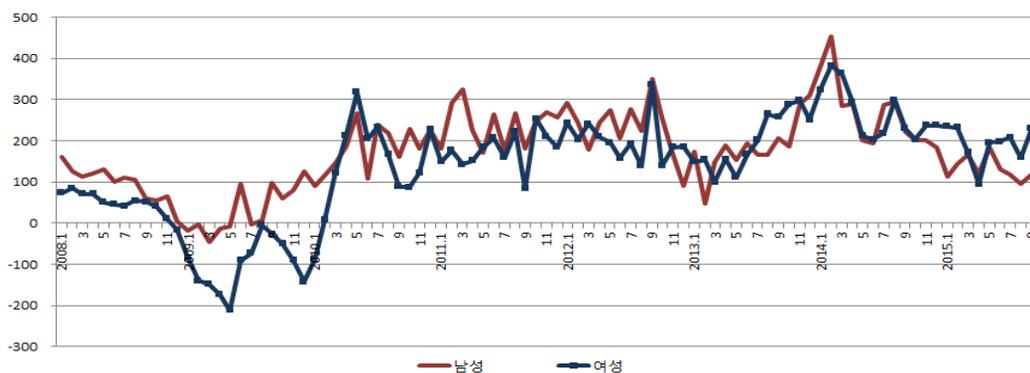
- 여성 취업자 증가의 영향으로 여성 고용률은 0.5%p 증가한 반면, 남성은 0.3%p 감소
- 고령화 영향을 제거한 15~64세 고용률은 0.4%p 상승해 66.1%를 기록하였는데, 이

는 여성고용률이 0.9%p 증가한 영향

- ◎ 고용률 증감을 전년동월대비로 볼 때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둔화하는 추세를 벗어나지 못함

[그림 2] 성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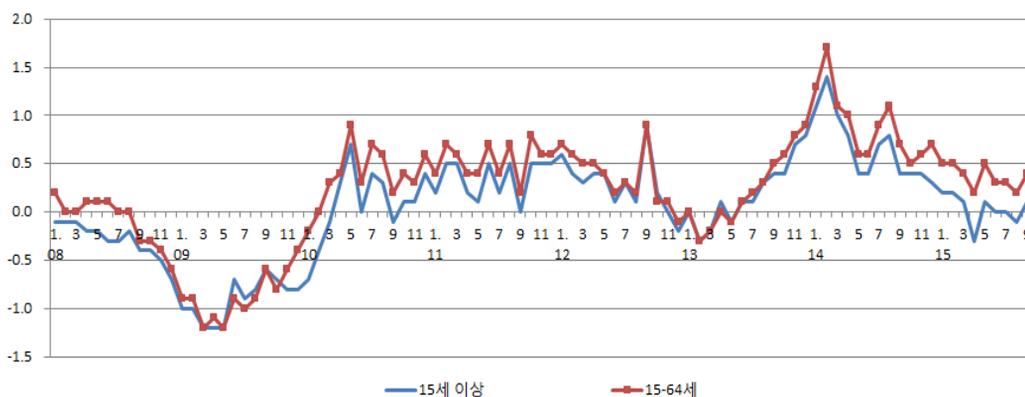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3]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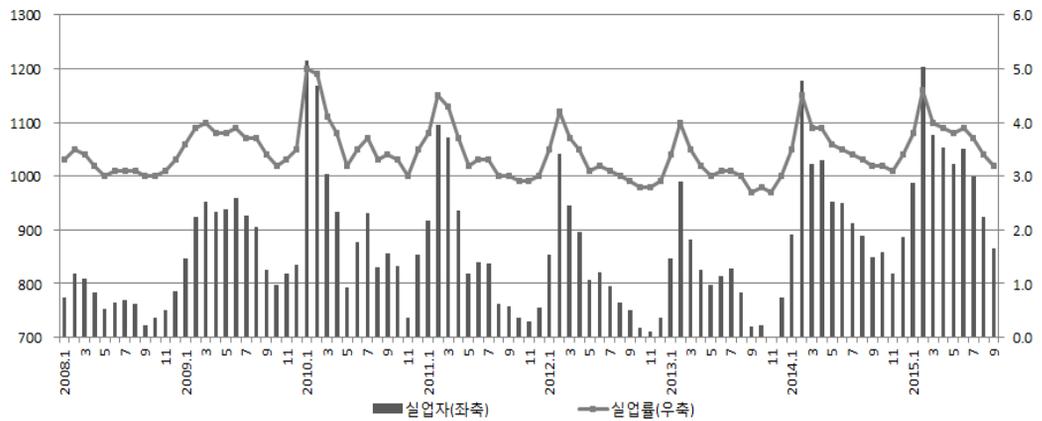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실업자 수 및 실업률 : 2014년 9월 대비 17천 명 증가, 실업률은 3.2%로 동일

- ◎ 비경제활동인구 : 2014년 9월 대비 145천 명 증가(증가율 0.9%)
 -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내내 감소 추세를 보이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2015년 플러스(+) 증가로 돌아선 후 빠르게 증가하다 5월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지만 증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그림 4] 실업자,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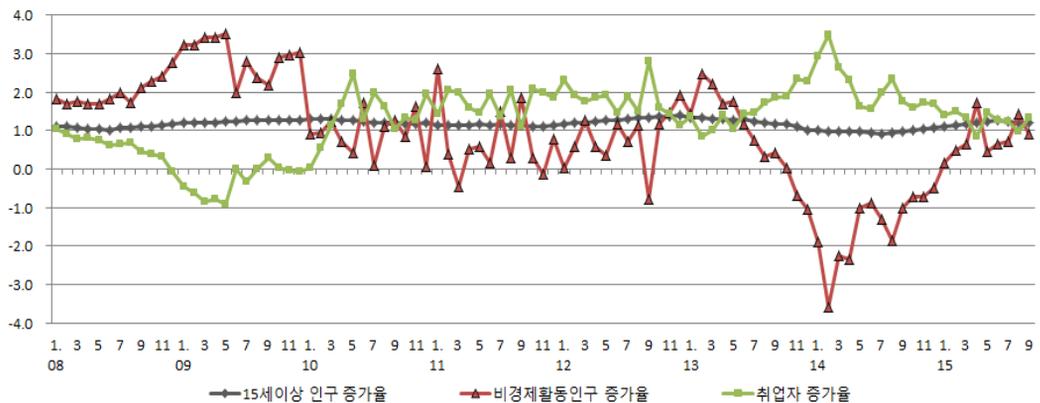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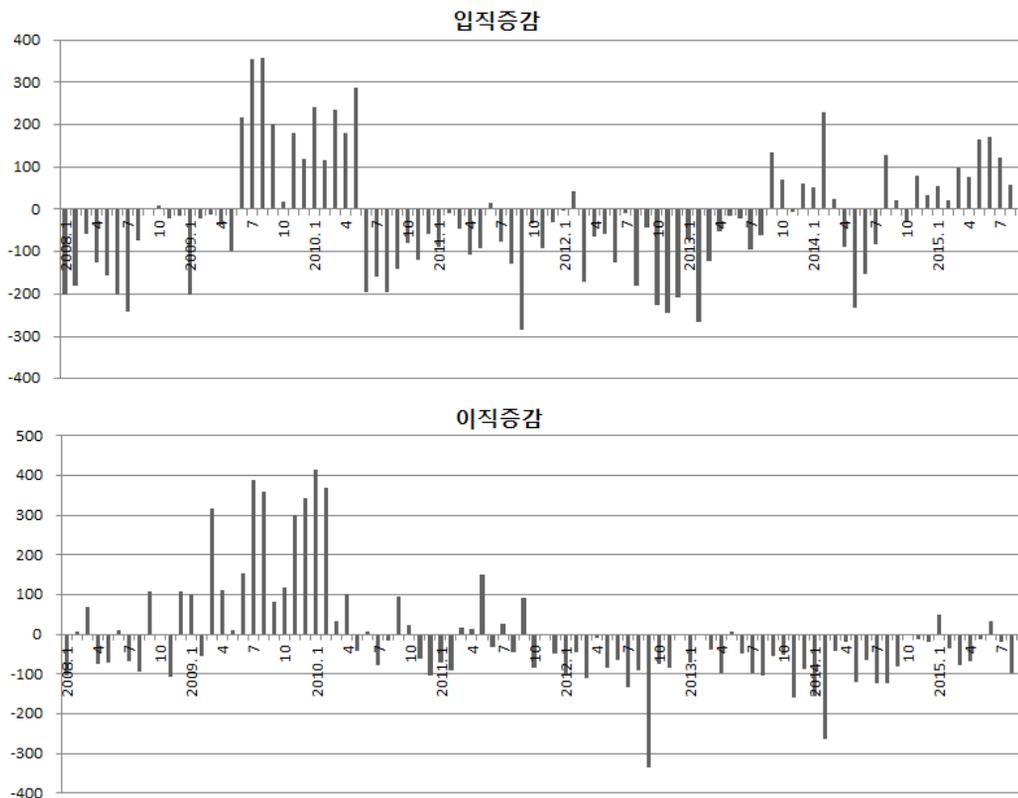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입직과 이직 흐름을 분석해 보면, 입직의 경우 2014년 하반기 이후 상승 추이를 유지해 온 반면, 이직은 감소 추세를 지속
- 2015년 9월 취업자 입직자 규모는 74천 명 증가
 - 2015년 들어 입직자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증가 추세를 계속 이어감
 - ※ 1월 54천 명 ↑ → 2월 20천 명 ↑ → 3월 96천 명 ↑ → 4월 77천 명 ↑ → 5월 166천 명 ↑ → 6월 171천 명 ↑ → 7월 121천 명 ↑ → 8월 58천 명 ↑ → 9월 74천 명 ↑
 - 종사상 지위로 보면, 상용직(34천 명 ↑)과 임시직(34천 명 ↑)을 중심으로 증가
 - 장기간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직자 수는 9월 61천 명 감소

[그림 6] 입·이직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주 : 입직은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 3개월 미만자 수, 이직은 이직한 지 3개월 미만인 미취업자 수이며, 전년동월대비 증감 수를 그린 것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전년동월과 비교할 때 휴·폐업이나 정리해고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는 8천 명 증가에 그친 반면,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상 경영악화의 이유로 이직은 39천 명 줄고, 작업여건 불만족은 32천 명 늘어남
- 자발적 이직사유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개인 및 가족 이유로 인한 이직이 36천 명 늘어남

〈표 2〉 각 연도 9월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자 수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증감	2012 증감	2013 증감	2014 증감	2015 증감
3개월 미만	2,443	2,400	2,533	2,553	2626	-285	-43	133	20	74
1년 미만	3,656	3,714	3,571	3,567	3723	59	58	-142	-4	156
1~3년 미만	3,760	3,940	3,963	4,074	4101	97	180	24	111	26
3년 이상	7,519	7,808	8,361	8,724	9018	403	289	553	362	295
전 체	17,378	17,862	18,429	18,918	19,468	275	484	567	489	55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각 연도 9월 3개월 미만 근속자의 종사상 지위(증감 및 비중)

(단위: 천 명, %)

	증 감					비 중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상 용	44	-46	35	-8	34	19.3	17.7	18.1	17.7	18.5
임 시	-133	-75	62	-13	34	35.6	33.1	33.8	33.0	33.4
일 용	-195	78	36	41	6	45.1	49.2	48.0	49.3	48.1
전 체	-285	-43	133	20	74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 각 연도 9월 3개월 미만 이직자의 이직사유별 추이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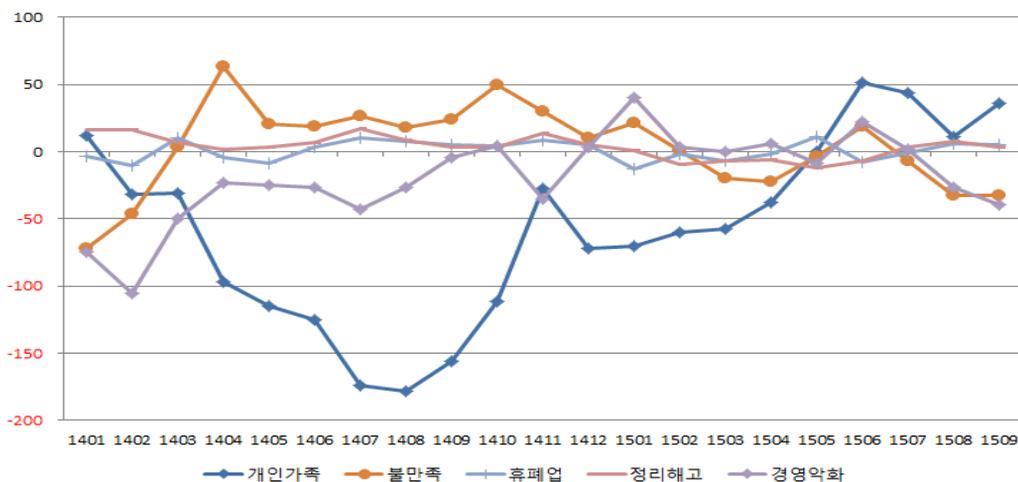
(단위: 천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 증감	2015 증감
개인, 가족관련 이유	696	776	682	645	489	525	-156	36
육아	35	37	25	26	34	18	8	-16
가사	33	47	22	26	31	26	5	-5
심신장애	12	16	4	12	8	10	-4	2
정년퇴직, 연로	25	17	14	18	20	18	2	-2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	205	194	154	169	192	160	24	-32
직장의 휴업, 폐업	31	22	38	29	34	39	5	5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44	31	44	24	28	31	4	3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218	214	157	136	145	154	9	9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222	265	151	149	145	105	-4	-39
기타	34	25	19	21	48	26	26	-22
전 체	1,554	1,645	1,310	1,254	1,172	1,111	-82	-6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7] 이직사유별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2015년 9월 고용동향의 부문별 특징

1.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 증가폭 크게 둔화

- ◎ 2015년 9월 취업자 수 증가는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증가한 영향
 -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 307천 명(134천 명+173천 명) 증가로 여전히 전체 고용변동을 주도함
 - 그러나 50대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전년동월의 2/3 수준에 그친 반면, 60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50대의 취업자 증가폭 둔화가 작년 9월 증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주요 원인
 - 반면, 20대를 중심으로 청년층(15~29세)의 증가 규모도 회복되어 91천 명 증가
 - 한편, 인구감소의 영향을 받은 30대는 67천 명 감소하였으나 40대는 17천 명 증가

〈표 5〉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생산가능인구 증감		
	2013. 9	2014. 9	2015					2015. 9	2013. 9	2014. 9
			6월	7월	8월	9월				
전 체	463	451	329	326	256	347	26,264	497	418	508
15~29세	38	52	71	22	36	91	3,956	46	-56	-9
15~19세	6	25	-2	-3	-4	-7	224	-45	-79	-75
20대	32	27	73	25	39	98	3,732	90	24	67
20~24세	51	70	71	17	23	66	1,439	163	62	40
25~29세	-20	-43	2	8	17	32	2,292	-72	-38	28
30대	-30	-32	-55	-53	-60	-67	5,671	-82	-105	-81
30~34세	33	12	-54	-41	-56	-71	2,861	32	-69	-129
35~39세	-63	-44	-1	-13	-4	4	2,810	-114	-37	49
40대	13	27	-12	4	-17	17	6,707	2	-11	-28
50대	264	206	155	180	121	134	6,049	244	201	171
60세 이상	178	198	170	173	177	173	3,882	286	389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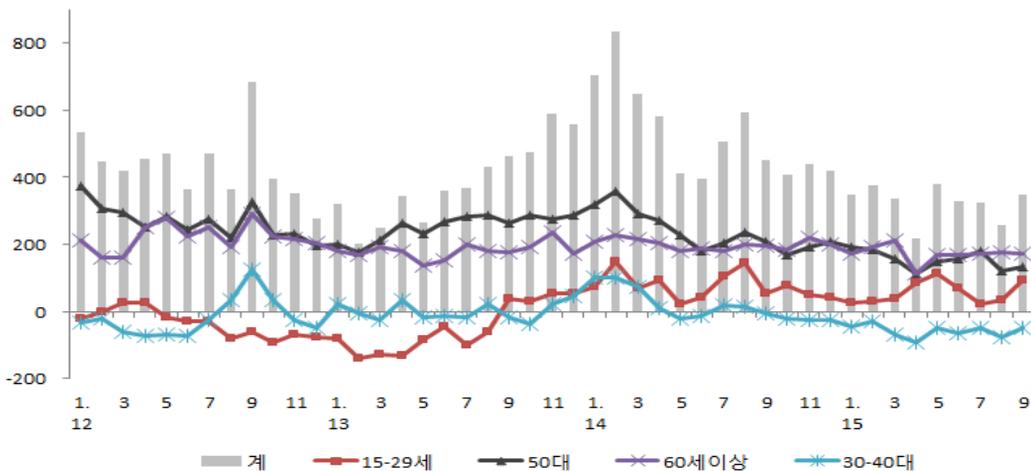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연령대별 취업자 수 변화 흐름

- 2013년 하반기 이후 증가 추세를 지속한 청년층(15~29세)의 증가폭(20대 초반 주도)은 등락을 반복하며 강한 흐름을 유지
- 그러나 취업자 전체 변화를 주도하는 50대와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취업자 증가폭이 2014년 하반기 이후 둔화 경향이 지속되면서 2015년 9월까지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가 30만 명 초반을 유지
- 인구감소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30~40대는 2014년 하반기 이후 꾸준한 감소 흐름을 지속

[그림 8] 전년동월대비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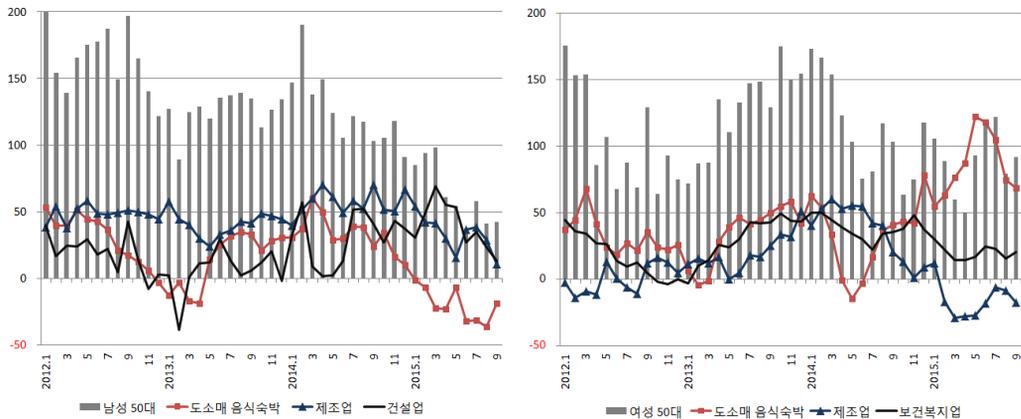
◎ 50대는 남성 취업자 수가 크게 둔화

- 50대 취업자 수 둔화에는 남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2014년 하반기 이후 추세적 감소를 이어감(그림 9 좌측 참고)
- 이러한 추세는 자영업자가 대거 포진되어 있는 50대 남성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한편, 50대 남성 취업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증가폭이 가파르게 둔화하는 영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 반면, 여성 취업자 전체 변화를 주도하는 50대는 보건복지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소폭 회복한 영향으로 이번 달 증가(그림 9 우측 참고)
- 그렇지만 여성 50대 취업자 변화를 주도했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제조업, 보건 및 복지업의 증가 흐름이 2015년 들어 제조업, 보건 및 복지업은 크게 감소하거나 둔화하는 흐름으로 변하는 동시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도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화하는 등 향후 50대 여성 취업자의 큰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림 9] 50대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좌측 남성, 우측 여성)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성별 고용률 여성 0.5%p 증가, 남성은 0.3%p 감소

- 여성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여성은 고용률이 증가한 반면, 남성은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한 영향으로 고용률 하락
- 남성 전체 고용률은 15~29세만 1.1%p 증가하였고, 그 외 모든 연령대에서는 감소했는데, 특히 40대 1.0%p↓, 30대 후반 0.8%p↓, 60세 이상 0.5%p 감소
- 남성 40대 취업자 감소의 영향으로 고용률의 감소 추세는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음
- 반면, 여성은 15~19세(0.2%p↓), 30대 후반(1.0%p↓)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했는데, 20대 1.1%p↑, 30대 초반 1.2%p↑, 40대 1.2%p↑, 50대 1.1%p 증가함
- 무엇보다 30대 초반의 경우 4개월 연속 고용률이 60%를 넘는 수준까지 증가(기록 이후 최초)

〈표 6〉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p)

		2013. 9	2014. 9	2015				증감 (2014. 9→ 2015. 9)
				6월	7월	8월	9월	
전 체	전 체	60.4	60.8	60.9	61.1	60.7	60.9	0.1
	15~29세	39.9	40.7	41.4	42.4	42.0	41.7	1.0
	15~19세	6.3	7.3	7.5	9.0	8.7	7.2	-0.1
	20대	57.3	57.5	58.1	58.7	58.3	58.4	0.9
	20~24세	43.7	45.1	46.2	47.3	47.0	46.6	1.5
	25~29세	69.5	69.0	69.2	69.4	68.8	69.4	0.4
	30대	73.8	74.4	74.3	74.6	74.3	74.3	-0.1
	30~34세	73.5	75.1	75.4	76.0	75.8	75.8	0.7
	35~39세	74.2	73.8	73.2	73.2	72.8	72.9	-0.9
	40대	78.7	79.2	79.4	79.2	78.9	79.6	0.4
	50대	74.0	74.7	74.9	75.1	74.3	74.8	0.1
	60세 이상	40.6	41.0	41.1	40.8	40.5	40.9	-0.1
남 성	전 체	71.4	71.7	71.5	71.8	71.4	71.4	-0.3
	15~29세	38.3	38.7	39.5	40.7	40.4	39.8	1.1
	15~19세	5.2	6.2	6.2	7.8	7.7	6.3	0.1
	20대	56.2	55.7	56.4	57.3	56.8	56.4	0.7
	20~24세	38.7	38.9	40.4	42.2	41.6	40.1	1.2
	25~29세	70.2	69.6	69.7	69.9	69.5	70.0	0.4
	30대	90.5	91.1	90.9	91.3	90.9	90.7	-0.4
	30~34세	88.7	90.4	89.8	90.7	90.3	90.4	0.0
	35~39세	92.5	91.9	92.1	91.8	91.6	91.1	-0.8
	40대	92.0	92.7	92.6	92.4	92.0	92.4	-0.3
	50대	87.8	88.0	86.9	87.3	86.5	87.0	-1.0
	60세 이상	52.9	53.2	53.1	52.9	52.4	52.7	-0.5
여 성	전 체	49.8	50.4	50.7	50.8	50.4	50.9	0.5
	15~29세	41.5	42.7	43.3	44.1	43.7	43.7	1.0
	15~19세	7.5	8.4	8.7	10.2	9.8	8.2	-0.2
	20대	58.3	59.2	59.7	60.1	59.7	60.3	1.1
	20~24세	47.9	50.4	51.3	51.8	51.6	52.2	1.8
	25~29세	68.8	68.4	68.6	68.8	68.2	68.8	0.4
	30대	56.6	57.1	57.0	57.2	57.0	57.2	0.1
	30~34세	57.7	59.1	60.1	60.4	60.5	60.3	1.2
	35~39세	55.5	55.2	53.9	54.1	53.6	54.2	-1.0
	40대	65.1	65.4	65.9	65.8	65.6	66.6	1.2
	50대	60.2	61.4	62.8	62.8	61.9	62.5	1.1
	60세 이상	31.1	31.6	31.7	31.3	31.1	31.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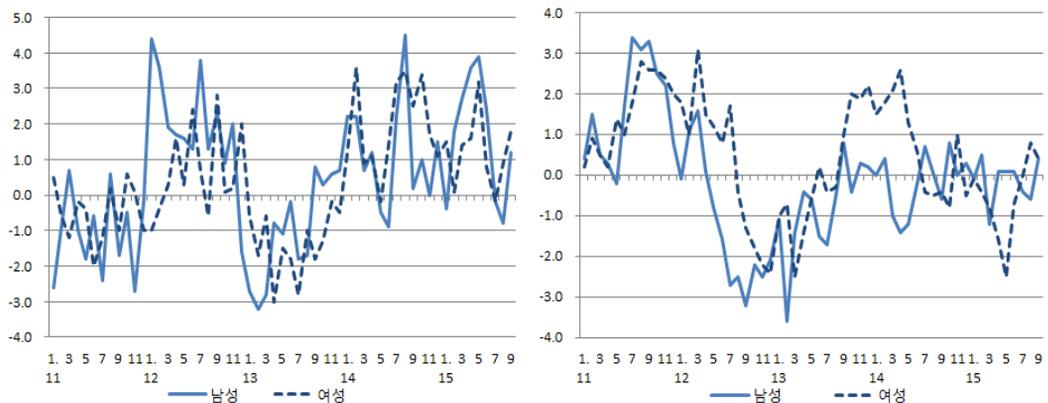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20대는 남녀 모두에서 고용률이 개선

- [그림 10]의 우측을 보면,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지속했던 20~24세 고용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하였으나 여전히 증가국면에 있고,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로 돌아섬
- 한편, 2013년 하반기 이후의 청년층 고용률 증가를 이끈 25~29세 여성은 2014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동시에 남성 20대 후반도 증가로 반전함

[그림 10]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20~24세 좌측, 25~29세 우측)

(단위: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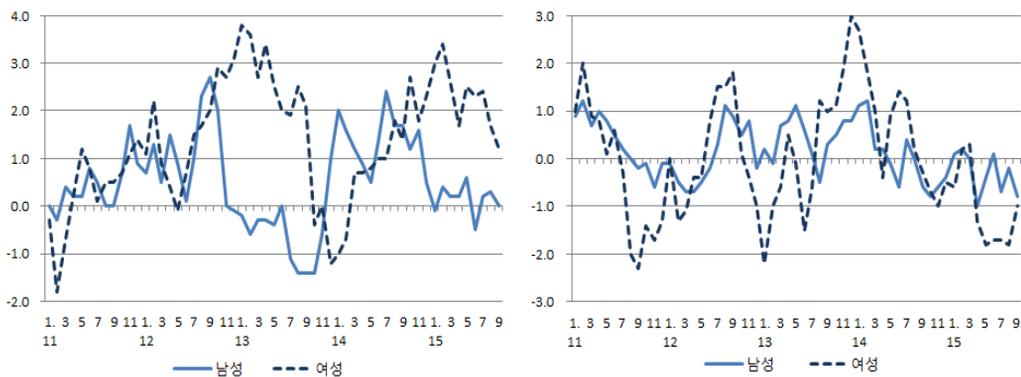
◎ 30대는 30~34세 여성에서 주도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함

- [그림 11]의 좌측을 보면, 여성 30대 초반에서 2014년 초를 기점으로 상승추세를 이어감. 반면, 남성은 큰 폭의 하락을 한 이후 증감을 반복
- 30대 후반은 남녀 모두에서 2014년 하반기 이후 감소를 지속하는 가운데 여성의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남
- ※ 25~29세 여성의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해 현재 남성의 고용률과 큰 차이가 없어진 흐름과 마찬가지로 30~34세의 여성 고용률도 만혼이나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증가의 영향으로 취업이 활발해진 노동공급 효과로 해석가능

※ 30~34세 여성의 취업자 가운데 무배우자(미혼)의 비중은 2005년 28.7%에서 2014년 41.7%까지 급증

[그림 11]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30~34세 좌측, 35~39세 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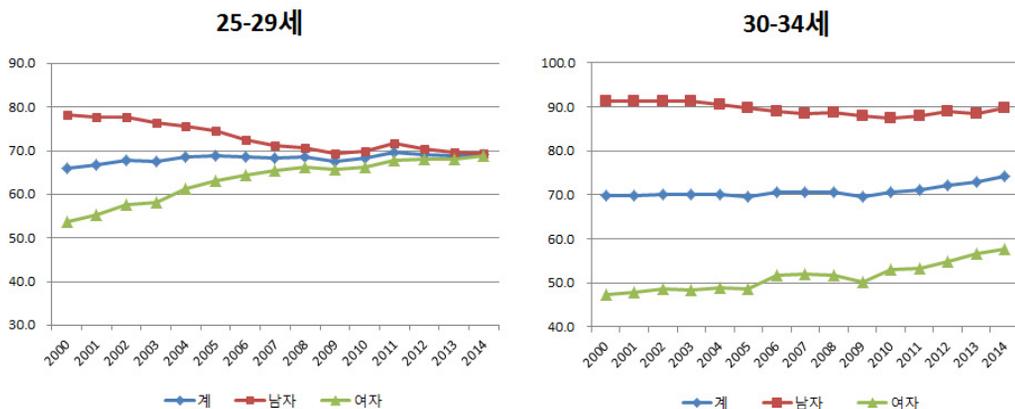
(단위: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2] 연령별, 성별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고용률 장기 추이

(단위: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 ◎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40만 명을 밑도는 수준을 유지하던 상용직이 3개월 연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를 주도
 - 2015년 9월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545천 명 증가와 임시직 32천 명 증가의 영향으로 550천 명 증가
 -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73천 명 ↓)와 무급가족종사자(54천 명 ↓) 감소의 영향으로 203천 명 감소

〈표 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단위: 천 명)

	2013. 9	2014. 9	2015			
			6월	7월	8월	9월
전 체	463	451	329	326	256	347
임금	567	489	457	478	536	550
상용직	597	324	346	462	510	545
임시직	-24	201	65	-31	2	32
일용직	-6	-37	47	47	24	-27
비임금	-104	-38	-128	-151	-279	-20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	46	39	21	13	2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74	-28	-96	-97	-196	-173
무급가족종사자	-25	-56	-71	-75	-97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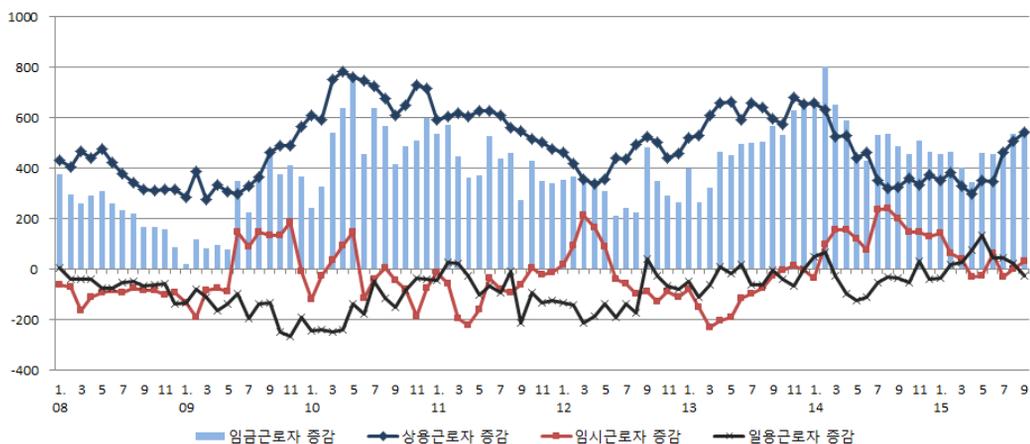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3개월 연속 상용직이 급증
 - 상용직은 2014년 하반기 이후 30만 명 중반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7월 462천 명 ↑, 8월 510천 명 ↑, 9월 545천 명 증가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 반면, 임시근로자는 2014년 2월 플러스(+)로 전환된 후 8월 242천 명 ↑로 고점을 기록한 후 가파르게 증가 추세가 둔화해 4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9월 32천 명 증가함

- 반면, 2014년 내내 감소국면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는 2015년 2월 20천 명 증가로 플러스(+)로 전환된 후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되다 9월 27천 명 감소로 돌아섬

[그림 13]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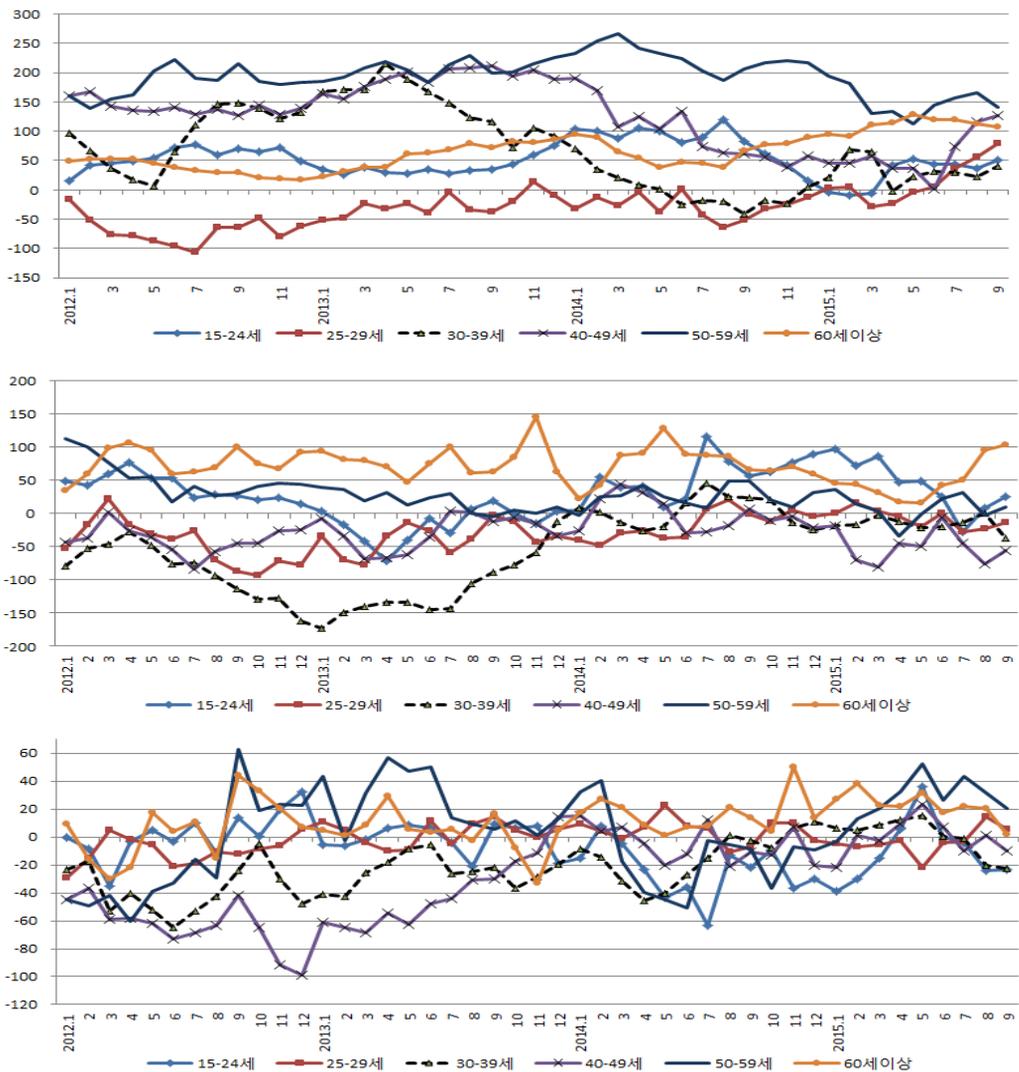
- ◎ 연령별로 보면, 상용직 증가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지만 특히 50대(141천 명 ↑), 40대(127천 명 ↑), 60세 이상(107천 명 ↑) 중고령층에서 주되게 증가한 가운데 15~24세(50천 명 ↑), 20~29세(79천 명 ↑), 30대(41천 명 ↑)에서도 증가
 - 증가폭이 가파르게 둔화하던 50대 상용직이 6월 반등한 이후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60세 이상에서의 10만 명 이상의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한편, 2013년 이후 빠르고 강한 감소 추세를 이어가던 40대 상용직의 경우 여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여성 95천 명 ↑, 남성 31천 명 ↑)
 - ※ 남성 40대는 제조업(73천 명 ↑),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40천 명 ↑)의 영향이고, 여성 40대는 보건 및 복지업(25천 명 ↑), 교육서비스업(23천 명 ↑), 전문·과학기술(16천 명 ↑), 도소매업(13천 명 ↑)에서 증가
- ◎ 다시 증가로 반전한 임시직은 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 증가의 영향으로 핵심연령

대(25~49세)는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음

- 노동시장 진입연령인 15~24세 임시직 증가폭은 2015년 상반기까지 추세적으로 둔화하였으나 2개월 연속 증가 규모가 확대
- 반면, 은퇴연령인 60세 이상에서 104천 명 증가로 급격히 늘어남

[그림 14] 상용근로자(위)와 임시근로자(중간), 일용근로자(아래)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8〉 종사상 지위별, 연령별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감

(단위: 천 명)

		2013. 9	2014. 9	2015			
				6월	7월	8월	9월
15~24세	상용직	35	82	43	44	38	50
	임시직	19	56	26	-27	8	25
	일용직	9	-22	0	-4	-24	-23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	4	0	0	2	3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16	-6	-5	-1	-5	-4
	무급가족종사자	6	-16	4	0	0	6
25~29세	상용직	-37	-52	4	37	56	79
	임시직	-3	-1	0	-28	-24	-14
	일용직	15	-7	-4	-3	15	5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	-3	-1	12	5	-3	-7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9	13	-7	-4	-22	-22
	무급가족종사자	0	5	-4	1	-5	-9
30~39세	상용직	117	-41	31	30	22	41
	임시직	-88	23	-21	-13	1	-38
	일용직	-22	-3	0	-1	-20	-23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	2	21	-33	-36	-35	-27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36	-14	-14	-14	-3	-11
	무급가족종사자	-4	-19	-19	-18	-25	-10
40~49세	상용직	212	62	1	74	116	127
	임시직	-12	7	-6	-45	-75	-55
	일용직	-30	-11	7	-10	1	-10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	-30	2	-15	-10	3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97	-4	23	19	-43	-34
	무급가족종사자	-30	-28	-21	-24	-19	-15
50~59세	상용직	199	206	145	158	165	141
	임시직	-4	50	23	31	-2	10
	일용직	5	-9	26	43	32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	23	1	55	42	31	45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10	-33	-61	-52	-67	-60
	무급가족종사자	31	-8	-33	-42	-37	-23
60세 이상	상용직	73	68	121	120	113	107
	임시직	63	66	43	51	95	104
	일용직	16	14	17	22	21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	-1	24	20	18	14	6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55	17	-32	-45	-55	-43
	무급가족종사자	-29	10	1	8	-11	-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전년동월대비 업종별 상용직 증감을 보면, 제조업(158천 명 ↑)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사업지원서비스업(78천 명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6천 명 ↑), 음식숙박업(61천 명 ↑)에서 두드러지게 증가

〈표 9〉 2015년 9월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업종별 증감

(단위: 천 명, %)

	전년동월 대비 상용직 증감	상용직 수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전년동월 대비 임시직 증감	전년동월 대비 일용직 증감
제조업	158	3,368	83.6	19	-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1	87	93.4	-2	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	68	82.3	4	0
건설업	1	579	41.1	7	0
도소매업	-15	1,198	53.0	-27	-8
운수업	7	598	76.3	1	9
음식숙박업	61	318	22.7	32	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6	638	89.8	4	-5
금융 및 보험업	-3	495	65.0	-35	-2
부동산 및 임대업	1	201	53.5	17	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8	820	89.8	4	-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8	793	65.8	12	2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	740	77.7	-19	-2
교육서비스업	36	998	67.3	13	-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6	1,290	74.5	24	-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3	121	42.7	15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2	395	52.3	-32	-26
기타	-8	51	21.1	-6	-11
전 체	545	12,758	65.5	32	-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임시직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어간 음식숙박업(32천 명 ↑), 여가관련 서비스업(15천 명 ↑), 건설업(4천 명 ↑), 이 세 산업의 증가는 소폭 둔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보건 및 사회복지업(24천 명 ↑), 제조업(19천 명 ↑)이 소폭 증가

- 반면, 금융 및 보험업(35천 명↓), 도소매업(27천 명↓), 기타 개인서비스업(32천 명↓)에서 감소

※ 증가 규모가 상당했던 임시직 도소매업은 2014년 7월 76천 명 증가 이후 8월 95천 명↑→ 9월 86천 명↑→ 10월 67천 명↑→ 11월 59천 명↑→ 12월 42천 명↑→ 1월 54천 명↑→ 2월 3천 명↑→ 3월 0천 명↑으로 증가폭이 꾸준히 둔화하다 4월 41천 명 감소로 돌아섰고, 5월 30천 명↓→ 6월 8천 명↓→ 7월 22천 명↓→ 8월 36천 명↓→ 9월 27천 명 감소로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증가 추세를 지속하다 3월 23천 명↓, 4월 53천 명↓, 5월 37천 명↓, 6월 30천 명↓, 7월 10천 명↓, 8월 38천 명↓, 9월 32천 명 감소를 지속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금융 및 보험업도 12개월 연속 감소

◎ 한편 5개월 연속 증가한 일용직은 사업지원서비스업(29천 명↑)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기타 개인서비스업(26천 명↓)에서 비슷한 규모의 감소를 하였으며 기타 다른 산업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3. 비임금근로자 추이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감소세가 크고 강한 흐름에서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 추세에서 소폭 반등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3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 감소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8월에는 196천 명이나 감소해 2010년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한 후 9월 174천 명 감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남성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남성 121천 명↓)되었으며 주로 40세 이상 중고령 연령에 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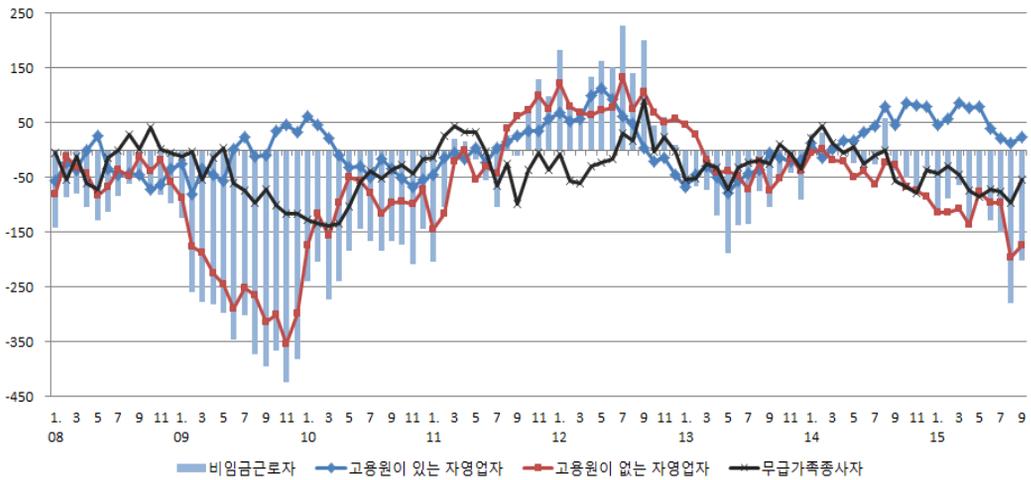
- 여성은 전체적으로 감소폭(53천 명↓)이 크지 않았고, 주되게 감소한 연령도 60세 이상에 몰려 있음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2013년 하락세를 벗어나 2015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6월 이후 증가폭이 가파르게 둔화하다 9월 반등

- 무급가족종사자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인 일부 등락을 제외하면 지속적이며 강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5년 이후 가파른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그림 15] 최근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KOSIS.

- ◎ 2015년 9월 전년동기대비 자영업자의 업종별 증감을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도소매업(20천 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2천 명 ↑)에서 소폭 증가했지만, 음식숙박업이 전년동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보건 및 사회복지업도 4천 명 감소한 영향으로 전체적인 둔화의 흐름을 지속
 -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농림어업(86천 명 ↓)에서의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50세 이상 중고령층 남성이 중심이며 추세적 경향으로 판단함
 - 전통적 내수산업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표 10〉 2015년 9월 자영업자의 업종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감		자영업자 수	증감		자영업자 수
	2014. 9	2015. 9		2014. 9	2015. 9	
농업, 임업 및 어업	-9	7	53	-53	-86	870
제조업	-5	-3	198	5	-6	189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	1	4	0	0	2
건설업	24	-4	166	23	-5	240
도소매업	-1	20	365	-19	-14	843
운수업	-2	-3	29	-30	10	592
음식숙박업	30	7	327	0	-11	257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	4	24	11	-2	42
금융 및 보험업	-7	2	8	3	0	22
부동산 및 임대업	5	-9	29	8	9	11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	12	73	16	-5	7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	3	32	5	-6	28
교육서비스업	9	-6	80	14	-38	25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	-4	85	-4	3	6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	-1	28	12	-15	9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6	-4	78	-31	0	367
기타	0	0	0	14	-7	15
전 체	123	24	1,578	-28	-174	4,0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계절조정 수치로 최근 추이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폭이 둔화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한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지속적이고 강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감소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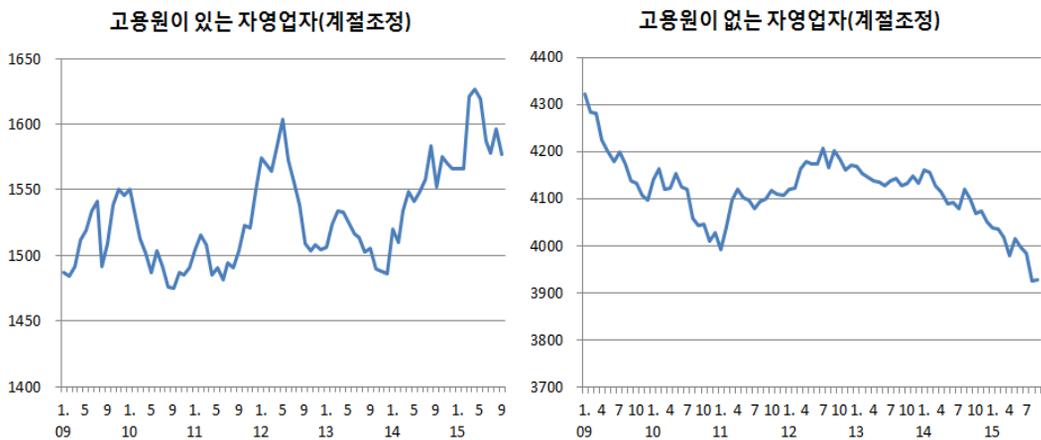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장기적으로 볼 때 1999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이며 강한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는데, 2005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까지 감소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400만 명 수준에서 등락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후 다소 회복하는 듯하였으나 2013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보임

[그림 16] 고용원 여부별 자영업자 수 추이(계절조정)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KOSIS.

4.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 ◎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비경제활동인구가 2015년 들어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주된 이유인 쉬었음의 증가폭이 꾸준히 둔화하는 가운데 8월과 9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
 - 한편, 취업준비 비경활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둔화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정규교육기관의 통학(136천 명↓)의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 규모는 크게 감소했고, 추세적 경향을 이어감

〈표 11〉 비경활인구 활동상태별 증감

(단위: 천 명)

	2013. 9	2014. 9	2015				2015. 9 비경활 인구 수
			6월	7월	8월	9월	
육아	-2	-29	37	22	12	-26	1,401
가사	-61	-110	-72	-76	16	4	5,716
정규교육기관 통학	42	-119	-230	-187	-171	-136	3,867
입시학원 통학	-37	21	-17	-6	-7	-8	73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5	24	35	56	68	56	259
취업준비	-54	6	29	7	10	15	363
진학준비	16	-33	23	13	17	-4	96
연로	39	99	96	100	102	107	2,029
심신장애	17	14	27	21	9	0	429
군입대 대기	0	19	18	15	9	-12	69
쉬었음	93	-64	102	92	142	134	1,568
기타	17	8	56	57	19	16	120
비경활 계	65	-164	104	114	225	146	15,990
*취업준비	-59	30	64	63	78	71	622
*통학	0	-74	-212	-137	-111	-88	4,199

주: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의 합.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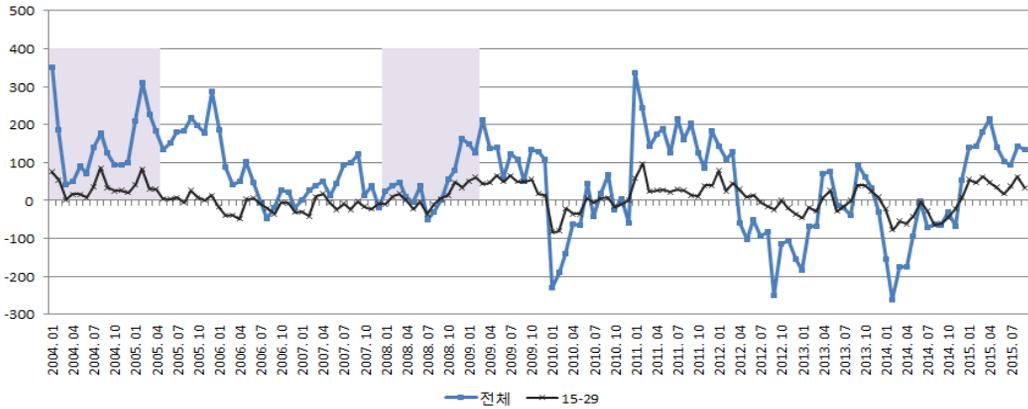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쉬었음은 2015년 내내 증가 추세에 있음

- 2014년 하반기 이후 쉬었음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2015년 4월까지 증가폭이 확대되다 5월 138천 명 ↑, 6월 102천 명 ↑, 7월 92천 명 증가로 10만 명 미만의 증가를 하다 8월 142천 명 ↑, 9월 134천 명 증가로 증가폭 확대
- 남성과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쉬었음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8월 쉬었음의 급증 역시 남성 증가(117천 명 ↑)가 주요 원인
-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층 증가 규모가 소폭 감소(34천 명 ↑)한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증가가 여전히 추세를 주도함

[그림 17] 쉬었음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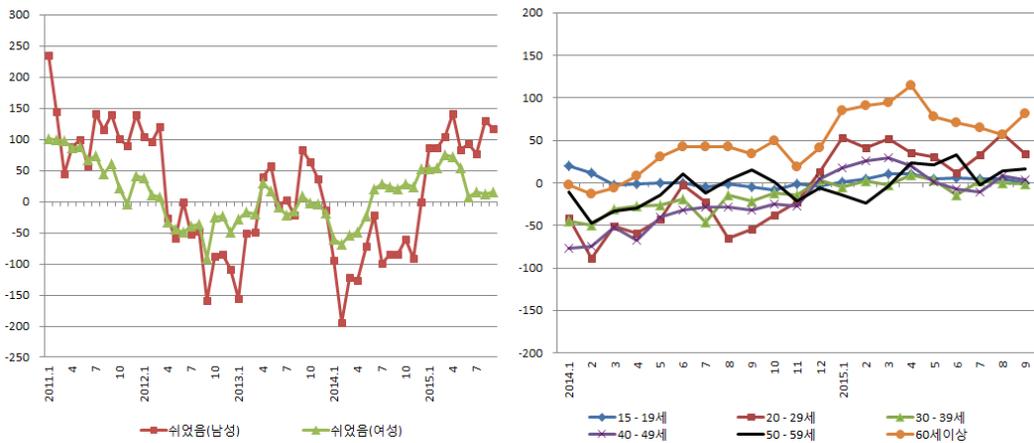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주: 음영은 경기순환 기준순환일 기준 수축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8] 쉬었음 성별(좌측), 연령별(우측)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참고〉 고용보조지표

- ◎ 2015년 9월 고용보조지표에 따르면, 실업률은 3.2%, 고용보조지표 1은 5.0%, 고용보조지표 2는 9.0%, 고용보조지표 3은 10.8%로 나타남
- 2015년 9월 실업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고용보조지표 1은 남녀가 동일했지만, 고용보조지표 2와 3은 여성이 높게 나타나 여성에서 노동시장 진입욕구가 활발했음을 보여줌

〈표 12〉 인적특성별 고용보조지표(2015년 9월)

(단위: 천 명, %)

		실업률		고용보조지표 1		고용보조지표 2		고용보조지표 3		
		실업률	실업자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고용보조지표 2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 가능자	잠재구직자	고용보조지표 3	
전체		3.2	865	5.0	494	9.0	1,746	38	1,708	10.8
성별	남성	3.4	531	5.0	249	8.2	820	21	800	9.7
	여성	2.9	334	5.0	245	10.1	926	18	908	12.1
연령	15~24세	8.8	161	10.9	38	23.0	336	6	330	24.8
	25~29세	7.3	179	8.9	40	17.5	306	6	299	18.9
	30~39세	3.1	182	4.1	56	7.5	275	8	267	8.4
	40~49세	2.1	145	3.7	111	5.6	251	9	242	7.1
	50~59세	2.1	129	4.3	138	6.4	282	6	276	8.5
	60세 이상	1.8	69	4.6	111	8.6	297	3	294	11.2
학력	고졸 미만	2.3	107	5.1	129	7.7	266	7	259	10.4
	고졸	3.5	374	5.5	208	10.0	766	19	747	11.8
	초대졸	3.4	119	4.5	39	9.2	222	5	217	10.2
	대졸 이상	3.2	267	4.6	119	8.5	492	8	484	9.9

- 주: 1)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2) 잠재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3)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4) 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
 5)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
 6) 고용보조지표 1=(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7) 고용보조지표 2=(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8) 고용보조지표 3=(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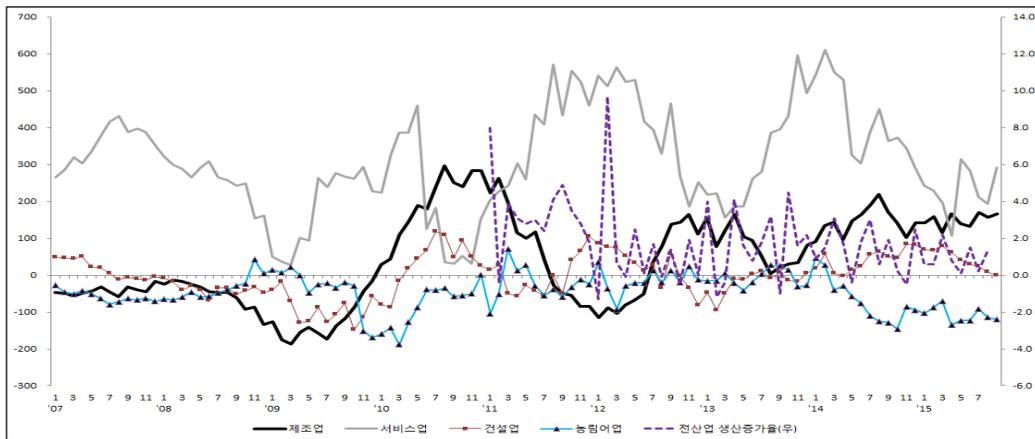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실업률이 가장 높은 15~24세와 25~29세의 고용보조지표 1, 2, 3이 높게 나타났고 15~24세의 경우 고용보조지표 3이 24.8%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실업률은 고졸이 3.5%로 가장 높았고, 고용보조지표 1, 2, 3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5. 사업체 특성에 따른 취업자 변화

- ◎ 2015년 9월 취업자 증감은 제조업의 견조한 증가세와 서비스업에서 고용 확대되어 전년동월대비 34만 7천 명 기록
 - 제조업 고용은 2012년 7월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3년 동안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2015년 9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66천 명 증가(1~9월 평균 150천 명 ↑)
 - 건설업 고용은 2014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천 명 감소(1~8월 평균 43천 명 ↑)
 - 2015년 9월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92천 명 증가하여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 기록. 이는 음식숙박업과 출판·영상·통신, 보건·복지서비스업의 견조한 증가세와 사업관리·지원서비스업 고용이 큰 폭의 확대를 보이면서 전체 서비스업의 고용확대를 주도함
 - 2015년 8월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0천 명 감소하는 등 1~8월 평균 107천 명 감소하면서 고용변화의 하방압력으로 작용

[그림 19]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주 : 1) 전산업 생산증가율(농림어업 제외)은 2015년 8월 기준임.

2) 2015년 7월, 8월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3>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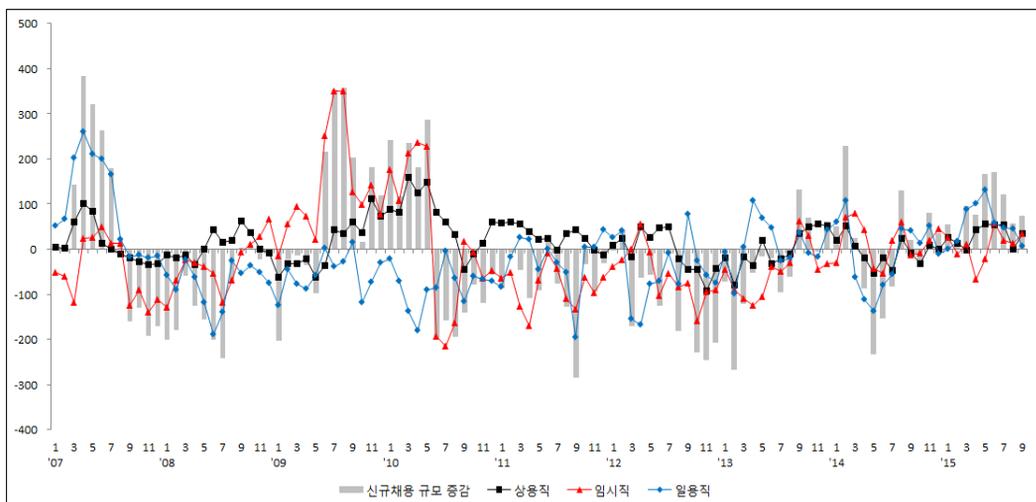
	2013. 9	2014. 9	2015			
			6월	7월	8월	9월
취업자 전체	463	451	329	326	256	347
농림어업	26	-128	-123	-91	-115	-120
건설업	7	51	29	25	10	-1
제조업	21	173	133	170	156	166
서비스업	396	365	283	212	194	292
도소매업	-11	151	45	11	-74	-46
운수업	41	-26	0	5	23	16
음식숙박업	83	123	96	75	102	8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	8	45	65	81	79
금융 및 보험업	34	-37	-57	-62	-47	-37
부동산 및 임대업	7	33	52	36	15	17
전문과학 등	-21	-15	26	30	32	4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2	-19	88	89	64	116
공공행정 등	23	-13	-6	-27	-23	-29
교육서비스업	25	60	-8	-18	-12	-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2	153	41	34	48	68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	6	45	35	32	18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12	-14	-47	-23	-12	-19
가구내 고용활동 등	10	-65	-38	-38	-35	-29
민간부문	440	464	335	353	280	376
공공부문	23	-13	-6	-27	-23	-2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2015년 9월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550천 명으로 증가폭 확대 지속
 - 임금근로자의 전체 규모는 2014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고용이 확대되어 전년 동월대비 1~9월 평균 461천 명 증가
 - 2015년 9월 신규채용 규모는 전년동월대비 74천 명 증가. 주로 상용직과 임시직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증가
 - 2015년 9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는 131천 명 증가하여 201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 이상의 고용확대가 나타남. 20~24세 상용직과 25~29세 상용직의 고용확대가 주도하였음
 - 30대 임금근로자(19천 명 ↓)는 고용 감소세로 전환되었는데 30~34세 연령층이 고용 감소를 주도하였고, 특히 도소매업과 공공행정 등에서 두드러지게 고용 감소가 나타났으며 상용직이 주도
 -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임금근로자 증가세 지속(1~9월 평균 160천 명 ↑)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임금근로자(369천 명 ↑) 증가폭 확대
 - 서비스업 세부 업종별로 사업관리·지원서비스업의 고용폭 확대와 음식숙박업 등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중

[그림 20] 종사상 지위별 신규채용 규모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4〉 임금근로자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2013. 9	2014. 9	2015				
			6월	7월	8월	9월	
임금근로자 취업자 증감	567	489	457	478	536	550	
임금근로자 신규채용 증감	133	20	171	121	58	74	
(상용직)	35	-8	54	54	-1	34	
(임시직)	62	-13	59	19	14	34	
(일용직)	36	41	58	48	45	6	
지위별	상용직	597	324	346	462	510	545
	임시직	-24	201	65	-31	2	32
	일용직	-6	-37	47	47	24	-27
연령별	20대	9	25	76	27	73	131
	20~24세	54	92	76	21	26	60
	상용직	30	78	47	45	43	51
	임시직	6	38	24	-16	0	23
	일용직	17	-24	5	-8	-17	-14
	25~29세	-26	-60	0	6	47	70
	상용직	-37	-52	4	37	56	79
	임시직	-3	-1	0	-28	-24	-14
	일용직	15	-7	-4	-3	15	5
	30대	8	-20	11	15	3	-19
	30~34세	40	9	-49	-29	-41	-61
	도소매업	-10	45	-22	-32	-30	-42
	음식숙박업	-23	28	3	23	22	5
	금융·보험업	14	-4	-8	-16	-25	-23
	공공행정	1	9	-5	-15	-20	-34
	보건복지업	21	2	-14	-20	-26	-24
	여자	55	5	-2	6	-2	-18
	상용직	87	-9	-42	-35	-41	-47
40대	170	58	2	19	42	62	
50대	200	247	194	232	194	172	
60대	152	147	181	193	229	213	
산업별	제조업	76	184	144	179	175	173
	서비스업	416	322	288	273	324	369
	도소매업	13	165	25	15	-39	-50
	음식숙박업	90	87	109	97	122	94
	사업관리·지원	30	-28	81	89	66	119

주: 신규채용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간주.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직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의 증가폭 확대와 사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견조한 고용 증가세를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증가한 반면, 관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고용부진 지속

〈표 15〉 직종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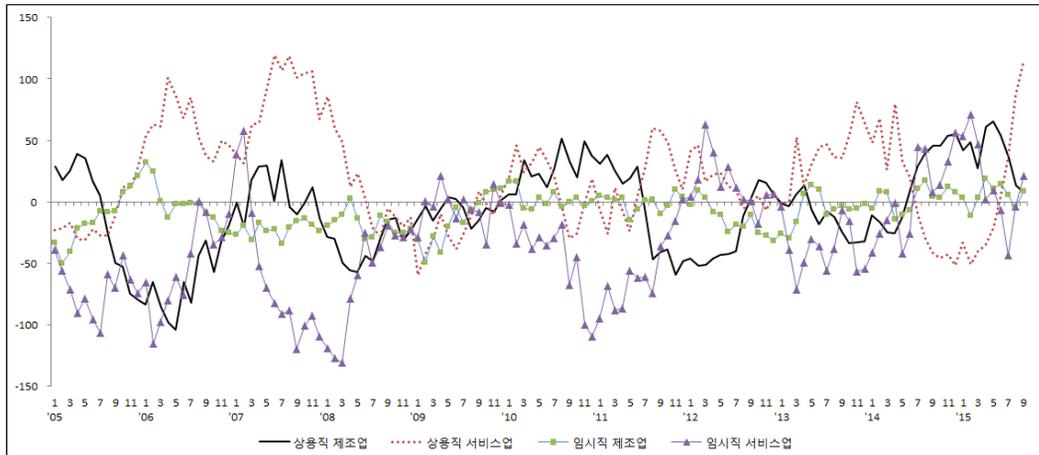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2013. 9	2014. 9	2015			
			6월	7월	8월	9월
취업자 전체	463	451	329	326	256	347
관리자	-77	10	-52	-44	-63	-5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60	107	38	41	47	102
사무종사자	114	59	84	84	93	114
서비스종사자	2	157	67	26	18	-22
판매종사자	48	96	20	-10	-44	-2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4	-117	-121	-104	-116	-12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72	26	105	126	118	10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53	54	43	84	104	94
단순노무종사자	21	59	145	125	99	1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1] 중소기업 20대 연령층의 일자리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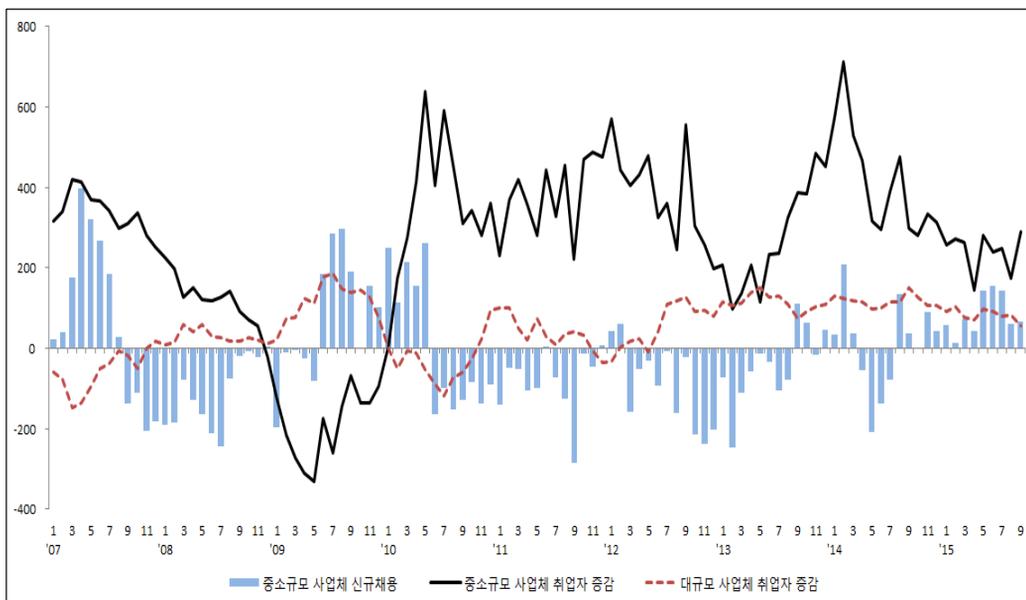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그림 22]에서 제조업 상용직의 취업자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상용직은 큰 폭의 고용확대를 보여 전년동월대비 115천 명 증가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7천 명 증가하면서 고용 둔화가 지속중이며 2015년 9월 대규모 사업체 신규채용은 전년동월대비 9천 명 증가
- 한편,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2015년 9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90천 명으로 고용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신규채용은 65천 명으로 고용 둔화중

[그림 22]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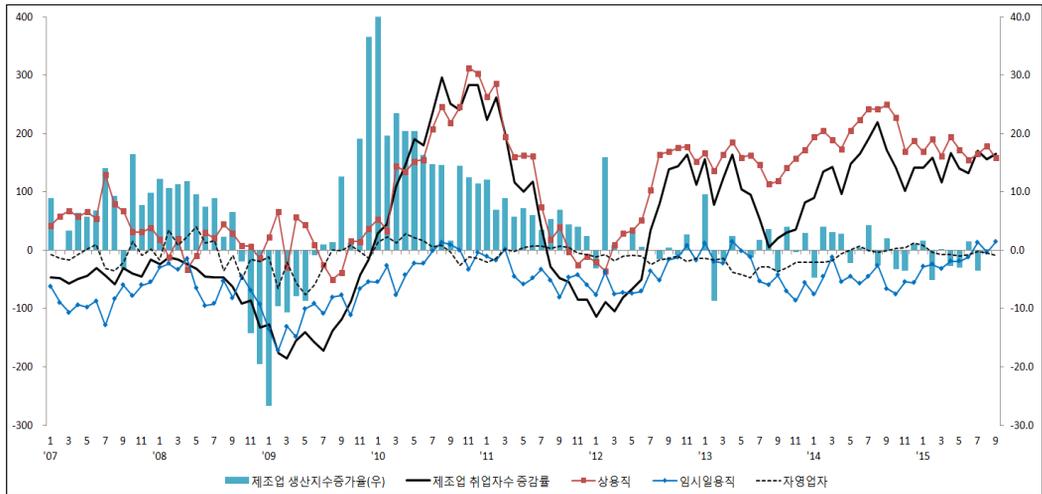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 제조업 부문: 생산 증가, 고용 증가세 지속

- ◎ 제조업 부문의 생산은 2015년 7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0.2% 증가(전월대비 0.4% 증가)했으며, 내수출하는 전년동월대비 0.8% 증가, 수출 출하는 0.1% 감소
- 제조업 고용은 2015년 9월 전년동월대비 166천 명 증가
- 제조업 생산지수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세는 지속중

[그림 23] 제조업 고용 증감 및 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주 : 1) 제조업 생산지수증가율은 2015년 8월 기준임.

2) 2015년 7월, 8월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제조업 고용은 2012년 7월부터 증가세 지속(2015년 1~9월 평균 150천 명 ↑)

- 제조업 고용은 상용직 중심의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일용직 취업자 수는 감소세 지속(5천 명 ↓)
- 2015년 9월 전년동월대비 20대 청년층은 5천 명 증가하였고 25~29세 연령층에서는 고용 감소가 확대되어 20천 명 감소. 대체로 상용직, 여성, 고졸 이하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음. 50대 고용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특히 50대 초반 연령층에서도 상용직과 임시직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
- 제조업 고용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부문들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30천 명 ↑), 식료품제조업(‘10’, 44천 명 ↑),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310천 명 ↑) 등임. 2014년 제조업 고용 증가세를 견인했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고용은 2015년에는 감소세 지속

〈표 16〉 제조업 취업자 고용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2013. 9	2014. 9	2015					
			6월	7월	8월	9월		
제조업 취업자 전체	21	173	133	170	156	166		
(신규채용)	-25	-49	23	44	16	40		
지위별	상용직	119	250	156	165	179	158	
	임시직	-23	-40	-27	11	6	19	
	일용직	-19	-26	16	2	-10	-5	
연령별	20대	-46	63	57	27	-5	5	
	20~24세	19	18	42	21	1	25	
	상용직	18	26	28	22	14	17	
	25~29세	-65	45	15	6	-7	-20	
	상용직	-63	40	14	10	-6	-17	
	여자	-42	23	-15	-12	-11	-18	
	고졸 이하	-4	17	-4	-16	-25	-29	
	30대	77	-10	11	42	30	30	
	40대	-78	36	6	27	58	73	
	50대	67	90	19	32	20	-7	
	50~54세	29	8	7	4	-12	-35	
	상용직	35	44	25	17	11	-15	
	임시직	-7	-9	-9	-3	-10	-13	
	규모별	중소규모	26	81	76	105	99	123
		대규모	-5	91	58	65	57	4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 서비스업 부문: 생산 증가, 고용 증가폭 둔화 지속

◎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은 2015년 8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2.1% 증가(전월대비 0.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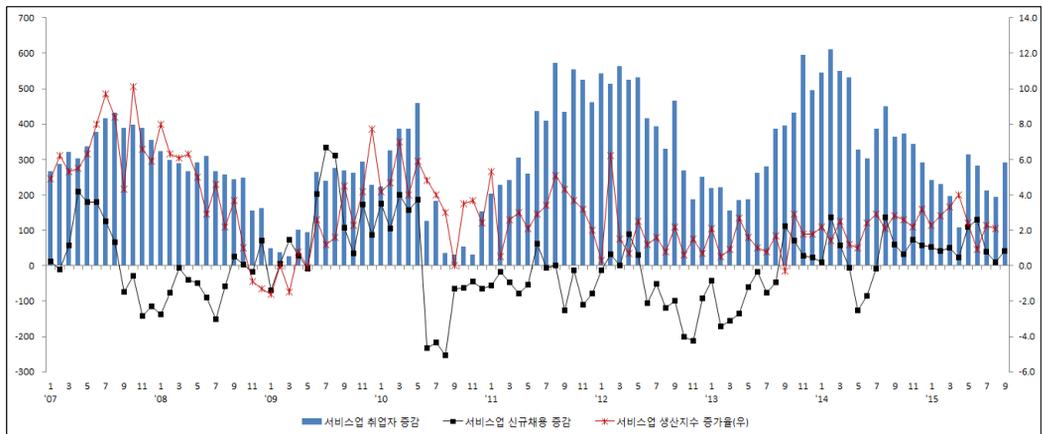
- 2015년 9월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92천 명 증가. 서비스업 상용직은 2014년 3월 이후 증가폭 확대(389천 명 ↑). 반면 그 외에 대부분의 종사상 지위(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제외)는 고용이 감소함으로써 서비스업 고용 증가의 하방압

력으로 작용중

- 서비스업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층의 고용 증가가 두드러졌는데(전년 동월대비 116천 명 ↑), 상용직을 중심으로 증가. 30대 중에서도 30대 초반 연령층의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상용직과 남성이 고용 감소를 주도하고 있음

[그림 24]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주: 1) 서비스업 생산지수증가율은 2015년 8월 기준임.

2) 2015년 6월부터 8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7〉 서비스업 특징별 고용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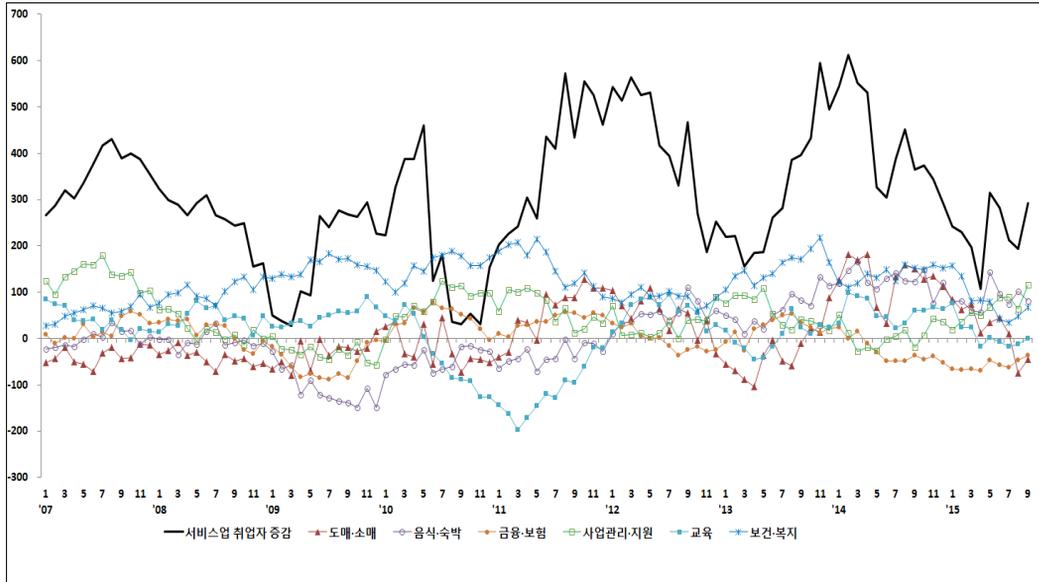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2013. 9	2014. 9	2015				
			6월	7월	8월	9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396	365	283	212	194	292	
(신규채용)	111	60	130	39	9	41	
지위별	상용직	417	88	208	324	352	389
	임시직	-3	224	64	-50	-16	0
	일용직	2	10	15	-2	-13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3	36	16	-8	4	2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	-3	3	-10	-90	-77
	무급가족종사자	6	10	-23	-43	-43	-23
성별	남자	138	105	38	20	7	56
	여자	258	260	245	193	188	236
연령별	20대	69	-23	43	19	62	116
	20~24세	23	67	44	12	32	51
	25~29세	47	-90	-2	7	30	65
	상용직	32	-90	-6	27	72	101
	30대	-125	36	-34	-42	-60	-66
	30~34세	1	64	-49	-65	-79	-99
	상용직	43	14	-42	-45	-58	-66
	임시·일용직	-44	29	-4	-3	-2	-18
	자영업	12	15	1	-13	-18	-21
	남자	-26	56	-36	-40	-49	-62
	도소매업	0	40	-29	-42	-36	-35
	음식숙박업	-24	42	-6	16	13	-1
	금융·보험업	11	-6	-8	-16	-25	-24
	공공행정	1	9	-5	-15	-20	-34
	보건복지업	25	6	-15	-22	-32	-32
	40대	128	1	-17	-36	-75	-48
	50대	181	104	144	147	127	163
	상용직	106	88	77	100	104	112
	60세 이상	115	246	153	145	151	16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5] 서비스업 부문 주요 업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도소매업 부문 고용 감소세로 전환

- 2015년 9월 도소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6천 명 감소하여 지난달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
-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의 고용 증가가 감소세로 전환되어 전년동월대비 15천 명 감소하였고 임시직의 고용 감소도 지속중. 대체로 남성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청년층의 고용 증가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30~40대의 고용 감소세 지속으로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중

〈표 18〉 도소매업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2013. 9	2014. 9	2015				
			6월	7월	8월	9월	
도소매업 취업자 증감	-11	151	45	11	-74	-46	
(신규채용)	13	33	15	-6	-24	0	
지위별	상용직	81	78	38	55	14	-15
	임시·일용직	-69	87	-14	-39	-53	-3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3	-1	1	0	15	2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7	-19	17	-1	-34	-14
성별	남자	-32	94	-51	-67	-112	-88
	여성	21	57	96	78	38	42
연령별	20대	7	25	13	-4	-16	6
	상용직	41	-3	4	15	6	-4
	일용직	0	-8	10	4	-1	9
	30대	-73	60	-28	-45	-55	-63
	상용직	-23	38	-2	-5	-27	-45
	임시·일용직	-42	23	-21	-32	-19	-29
	자영업자	-8	0	-2	-8	-4	13
	40대	25	11	-26	-24	-68	-53
	상용직	43	14	-7	5	-2	-2
	임시·일용직	-4	14	-16	-15	-40	-33
	자영업자	-12	-21	-5	-13	-20	-16
	50대	45	27	54	43	24	36
60세 이상	-11	24	26	43	36	32	
직종별	사무종사자	14	39	-3	6	-12	-28
	판매종사자	2	48	13	-23	-64	-2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금융보험업 부문 고용 감소세 지속

- 2014년 4월부터 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 9월 전년동월대비 37천 명 감소했고 신규채용 역시 감소중
- 대체로 상용직과 임시직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감소세 지속중
- 직종별로 보면, 판매종사자의 취업자 감소가 전년동월대비 33천 명으로 나타나 금융·보험업의 감소를 주도

〈표 19〉 금융·보험업의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2013. 9	2014. 9	2015			
				6월	7월	8월	9월
금융·보험업 취업자 증감		34	-37	-57	-62	-47	-37
(신규채용)		-1	10	-7	-13	-15	-6
지위별	상용직	22	-41	-17	-20	-11	-3
	임시직	8	8	-44	-51	-43	-37
성별	남자	31	-22	-7	-20	-16	-19
	여자	3	-15	-51	-42	-31	-18
연령별	20대	-18	-5	-25	-27	-14	-12
	20~24세	-2	10	-4	-7	-8	-13
	30대	30	-35	-13	-19	-24	-18
	30~34세	11	-6	-8	-16	-25	-24
	40대	-1	5	-16	-23	-23	-26
	40~44세	-5	2	-14	-8	-6	-9
	45~49세	4	3	-2	-15	-17	-17
직종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	-13	-16	-14	-11	-9
	사무 종사자	10	-34	-12	-16	-9	-5
	판매 종사자	25	17	-37	-39	-35	-3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사업관리·지원업 부문 고용 증가세 지속

- 2014년 10월부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년동월대비 116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대폭 확대되었고 신규채용 또한 52천 명 증가
- 임금근로자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지속중이며 전 연령층에서 고용 증가가 나타남
- 직종별로 보면, 절반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단순노무 종사자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질 좋은 일자리의 증가로 보기는 어려움

〈표 20〉 사업관리·지원업의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2013. 9	2014. 9	2015				
			6월	7월	8월	9월	
사업관리·지원업 취업자 증감	42	-19	88	89	64	116	
(신규채용)	4	22	15	32	33	52	
지위별	상용직	49	-38	52	74	48	78
	임시직	-14	-5	5	-14	-7	12
	일용직	-6	15	25	28	25	29
성별	남자	40	-15	62	65	30	52
	여자	3	-4	27	24	34	64
연령별	20대	19	-28	-21	-7	-14	4
	30대	2	-18	45	46	30	33
	40대	18	-14	-4	-6	3	16
	50대	-10	9	19	8	10	17
	60대 이상	14	35	50	51	35	45
직종별	사무종사자	18	-10	15	19	6	15
	판매종사자	-4	-2	-4	3	9	1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	-3	6	7	9	1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	1	21	21	18	20
	단순노무종사자	1	4	59	52	50	6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공공행정서비스업 고용 부진 지속

- 2014년 5월 이후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년동월대비 29천 명 감소
- 임금근로자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짐
- 30대 고용 감소가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30~34세 연령층의 고용 감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대 청년층과 50대 연령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15천 명, 12천 명 증가

〈표 21〉 공공행정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2013. 9	2014. 9	2015			
				6월	7월	8월	9월
공공행정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23	-13	-6	-27	-23	-29
(신규채용)		-2	-10	15	-6	-12	-1
지위별	상용직	22	-2	-14	-11	-17	-8
	임시직	5	-10	13	-14	-3	-19
	일용직	-5	-2	-5	-2	-4	-2
성별	남자	0	-17	8	-4	2	12
	여자	23	4	-14	-23	-25	-41
연령별	20대	2	5	-9	4	-2	15
	30대	-8	-6	-1	-9	-11	-30
	30~34세	1	9	-5	-15	-20	-34
	40대	25	-24	0	-18	-19	-18
	50대	-1	4	2	7	9	12
	60대 이상	4	7	3	-8	1	-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 부진 지속

- 메르스의 영향으로 2015년 4월 이후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2015년 9월 전년동월대비 68천 명 증가하면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
- 대체로 상용직과 임시직의 취업자 증가가 주도
- 성별로 보면, 여성의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남성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천 명 감소
- 20대 청년층의 고용 감소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30대의 고용 감소는 지속. 특히 30~34세 연령층의 고용 감소가 주도

〈표 2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특징별 고용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2013. 9	2014. 9	2015				
			6월	7월	8월	9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172	153	41	34	48	68	
(신규채용)	7	9	10	-1	6	11	
지위별	상용직	131	97	37	29	32	46
	임시직	19	55	12	10	26	24
	일용직	-1	6	-11	-6	-1	-2
성별	남자	30	53	8	-16	-5	-3
	여자	142	100	33	50	53	71
연령별	20대	27	13	-25	-21	-2	6
	30대	28	24	-1	-17	-33	-20
	30~34세	25	6	-15	-22	-32	-32
	40대	53	0	16	14	22	27
	50대	34	54	29	22	15	17
	60대 이상	31	63	27	38	49	4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3) 건설업 부문: 생산증가, 고용 감소로 전환

- ◎ 건설업 부문의 생산은 2015년 8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4.5% 증가(전월대비 3.9% 증가)
 - 건설업 취업자는 2015년 9월 전년동월대비 1천 명 감소. 신규채용 역시 11천 명 감소
 -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에서 지난 3월 이후 감소하던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일용직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대폭 감소하였음
 - 2014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남성 취업자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고용이 감소

〈표 23〉 건설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2013. 9	2014. 9	2015			
				6월	7월	8월	9월
건설업 취업자 증감		7	51	29	25	10	-1
(신규채용)		42	13	12	20	20	-11
지위별	상용직	45	-6	-19	-26	-14	1
	임시직	-1	31	24	6	6	7
	일용직	11	-22	19	34	36	0
성별	남자	6	46	29	24	13	-1
연령별	20대	12	-8	-19	-18	-17	-23
	30대	-12	-8	-21	-32	-27	-6
	40대	-15	5	14	17	3	-4
	50대	1	39	35	42	27	18
	60세 이상	21	23	18	14	21	12
직종별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7	-13	-25	-30	-21	-1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56	86	76	59	32	7
	일용직	-12	13	16	26	15	-6
	단순노무종사자	32	-46	-8	0	11	3
	일용직	24	-41	-5	-2	11	2
규모별	중소규모	10	65	27	21	2	-12
	대규모	-3	-15	2	3	8	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4) 농림어업 부문: 예년과 다르게 고용 감소폭 확대

◎ 농림어업 취업자는 2015년 9월 1,48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0천 명 감소

- 농림어업 특성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감소

※ 2014년 농림어업조사(12월 1일 기준) 농가, 어가 각각 2만1천 가구, 1천5백 가구 감소. 농어가 인구는 전년대비 101천 명 감소

※ 농림어업 취업자가 2014년 2월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 중에는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바뀌는 제도 변경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면서 농림어업 6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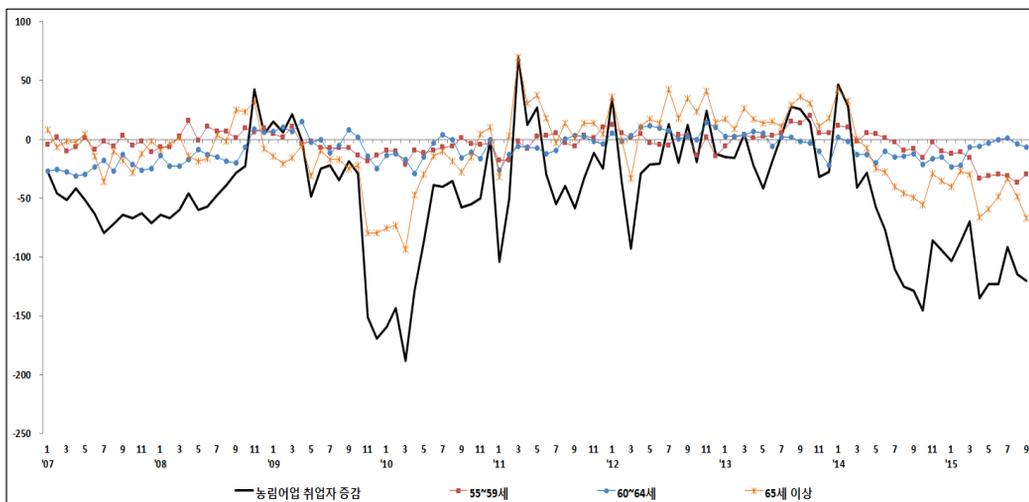
이상 취업자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급대상자는 시기별로 변화:

- * 2008년 1월~6월: 70세 이상 노인의 60%
- * 2008년 7월~12월: 65세 이상 노인의 60%
- * 2009년 1월~2014년 6월: 65세 이상 노인의 70%
- *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제도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 도입

[그림 26] 농림어업 취업자의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지급.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6. 지역별 고용상황

◎ 고용률 등 취업활동은 지역별 편차가 있음

- 광역시도의 2015년 9월 고용률은 제주도(68.7%), 충청북도(64.2%), 충청남도(63.9%) 순으로 높고, 부산(56.1%), 울산(59.2%), 대구(59.2%) 순으로 낮게 나타남
-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는 경기도(6,423천 명), 서울(5,144천 명), 경상남도(1,698천 명) 순으로 많고, 제주도(341천 명), 울산(568천 명), 광주(754천 명) 순으로 적

계 나타남

- 광역시도의 2015년 9월 실업률은 인천(4.8%), 서울(3.9%), 경기도(3.7%) 순으로 높고, 전라북도(1.1%), 제주도(1.5%) 그리고 충청북도(1.5%)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고용률이 높게 상승한 곳은 제주도(2.2%), 울산(2.0%), 강원도(1.8%), 전라남도(1.4%)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곳은 경상북도(-1.1%), 부산(-0.8%), 서울(-0.4%) 순으로 나타남

〈표 24〉 지역별 고용지표(2015년 9월 기준)

	고용률(%)		취업자 수(천 명)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 체	60.9	0.1	26,264	347	62.9	0.1	3.2	0.0
서울특별시	60.1	-0.4	5,144	-12	62.5	-0.7	3.9	-0.5
부산광역시	56.1	-0.8	1,662	-23	57.6	-1.3	2.6	-0.7
대구광역시	59.2	0.4	1,236	12	61.3	0.4	3.4	-0.1
인천광역시	61.6	-0.1	1,508	18	64.7	0.6	4.8	0.9
광주광역시	59.3	0.4	754	13	60.8	0.4	2.4	-0.1
대전광역시	60.7	0.3	784	3	62.3	0.1	2.6	-0.3
울산광역시	59.2	2.0	568	28	61.0	2.6	3.0	1.0
경기도	61.7	-0.2	6,423	116	64.1	0.3	3.7	0.7
강원도	60.2	1.8	767	30	61.6	1.5	2.3	-0.4
충청북도	64.2	0.3	857	17	65.2	-0.1	1.5	-0.6
충청남도	63.9	-0.3	1,233	37	65.8	-0.4	3.0	0.0
전라북도	60.3	1.3	921	24	61.0	0.6	1.1	-1.2
전라남도	62.4	0.8	939	19	64.1	1.0	2.6	0.2
경상북도	62.6	-1.1	1,428	-17	64.3	-1.1	2.7	0.1
경상남도	61.2	1.4	1,698	57	62.6	1.2	2.3	-0.2
제주도	68.7	2.2	341	23	69.8	2.3	1.5	0.1

자료 : 통계청 KOSIS(경제활동인구조사).